

우리집 생활 · 놀이 공간 안전한 家?

< 욕실 편 >



*어린이 안전사고는 '주택' 에서 매년 약 69%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(2018년 어린이안전사고 동향분석, 한국소비자원).



살펴보기
어떤 사고가 있나요?



조심하기
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?



약속하기
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?

공간 안전사고

욕실 내 공간에서는 물기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.

미끄러짐



- 샤워 부스나 욕조에 영유아용 손잡이 설치하기
- 욕실 내에 영유아용 발판 및 변기 시트 비치하기
-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 사용하기
- 욕실 바닥에 물기는 수시로 확인 후 제거하기
- 욕실 문의 잠금 장치는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하기

- 욕실 안에서는 뛰지 않기
- 세면대에 매달리지 않기
- 욕실 바닥에 물이나 비누거품 뿌리지 않기
- 욕실을 사용할 때 보호자에게 말하고 들어가기

온수 안전사고

온수로 인한 사고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

화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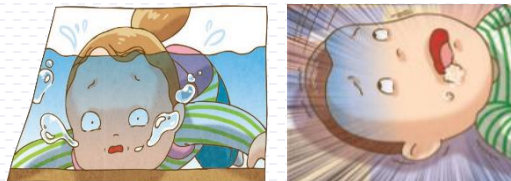
- 세면대, 샤워기 등 수전에 온수조절장치 설치하기
- 자녀를 씻기기 전 보호자는 미리 손으로 수온을 체크하기
- 가급적 온수는 욕조나 세면대에 받아서 사용하기

- 온수조절장치를 만지지 않기
- 목욕물을 받을 때에는 욕조에 가까이 가지 않기
- 샤워기 줄로 장난치지 않기

기타 안전사고

그외 화학물질 중독, 전기감전, 익사사고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.

- 화학물질 중독
- 감전
- 익사



- 락스, 세제 등 화학제품은 안전 마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, 본 용기에 그대로 담아 보관하기
- 욕실 내 전기제품 및 화학제품 등은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
- 물을 채운 욕조에 자녀를 혼자 두지 않기
- 목욕이 끝난 후에는 물을 반드시 버리기
- 평소에 변기 뚜껑 닫아 두기

- 락스, 세제 등 화학제품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
- 물이 묻은 손으로 욕실 내 전선이나 콘센트 등을 만지지 않기 (헤어 드라이기, 전기면도기 포함)
- 욕조 안에서 점프하거나 심하게 장난치지 않기
- 변기 사용 후 뚜껑 닫기